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이 열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한국경제, 대내외 복합위기 직면 과감한 개혁 통해 돌파구 찾아야”

### 기조강연

윤 증 현  
윤경제연구소장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 주제 강연 스테그플레이션·퍼펙트스톰 진단 “민간·정부 저성장 극복 협력 필요”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균형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퍼펙트스톰(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은 13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감사 리더스 씨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가 2.0%포인트(p) 넘게 벌어진 것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다”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이날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강연에서 ▲세계 산업사의 흐름 ▲우리경제의 자화상 ▲한국경제의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 ◆ 위기의 한국 경제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 금리, 환율 소위 말하는 삼고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해외 원자재 근원 물가와 농작물 근원 물가는 많이 잡혔지만,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한미 간에 금리 격차는 2.0%p나 차이 나는 상황에서 물

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반대로 경기안정을 선택하게 되면 물가안정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5.25~5.50%)과 금리차이가 2%p다.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낮아져 투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상대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환율 상승은 한은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윤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화됐고, 10차례에 가까운 추경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자는 600조원에서 1000조원까지 뛰었다”며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와 무

역수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저성장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는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 하락도 큰 위기중 하나로 꼽았다.

윤 소장은 “전 산업의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해 올해 연 1.4%가 예상되고 있다”며 “1.4% 성장해서는 우리가 일자리 유지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선거 등 유동성에 흉수가 나면서 국민의식이 추락했다”며 “공동체 의식 소멸과 건전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전환점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 ◆ 물가안정·저성장 탈출 ‘과제’

윤 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과 저성장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고분담과 입법부, 사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1~2% 수준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전망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부채 비율 역시 주요국 중 GDP 대비 1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책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예전 CNN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점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과 높은 평균 IQ, 높은 노동시간 대비 낮은 휴식시간 등을 소개했다”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강점을 살려 현재 처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개혁 결단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지속가능 기업·사회 만드는 암묵지 되길”

###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금융권 각 회사의 감사와 언론은 비슷한 운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견제·비판·감시·적발이 숙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깝게 할 수도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감사와 언론 같아 보입니다.

감사는 회사의 기본 인프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마치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 회사도 성장이라는 한 날개와 위험관리라는 또 다른 날개로, 즉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잘 돼야, 회사도 사회도 나라도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암묵지라는 말이 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현안해도, 사람들 대중들이 다 알아서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파워·구조·권위 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

니다. 사전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라고 나와있네요.

감사님들의 권위도 암묵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평소에 조심하고 규정과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 존재만으로 회사가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감사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를, 사회를 잘되게 하시는 감사님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 “감사업무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자리”

### 환영사

이 순 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이순우 메트로 언론윤리실천위원장.

반갑습니다. 특히 평소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야겨주셨던 존경하는 윤증현 장관님 뵙게되어 감사합니다.

금융업이라는 것은 현금이 늘 옆에 있습니다. 이거 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은행입니다. 최근에 직원 횡령 사고가 났다고 또 그러지만 다른 업종에 비교해보면 근래 들어 적었던 것은 전부 감사님들 덕분입니다. 계신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나쁜 맘을 떨 먹고, 못 먹습니다. 감사님들이 계시면 다 이상한 맘을 먹다가도 그만두는 거라 그러지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감사 직무를 하다보면 참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규정상 감

사는 견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경영자(CEO)가 되면 사사건건 감사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CEO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자고만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늘 지점에 제일 잘했던걸 공유하는 자리를 늘 만듭니다. 오늘 각기관에서 다 오셨는데 정말 내가 이거는 해보니 좋더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모범경영·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낸 운영방식)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